

무술년, 맹활약 기대되는 '연기파 스타 3인방'

2018년 무술년 반가운 얼굴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선다. 그들은 바로 대한민국 대표 배우인 이병헌, 류승룡, 황정민이다.

지난해 '마스터' '싱글라이더' '남한산성'에 출연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한 배우 이병헌은 올해도 다양한 작품으로 관객을 만난다. 먼저 오는 17일 개봉하는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 (감독 최성현)으로 스크린에 컴백한다. '그것만이 내 세상'은 모든 것이 정반대인 두 형제가 난생처음 만나 펼치는 유쾌한 감동 드라마다. 주먹만 믿고 살아온 전직 복서 '조하'와 엄마만 믿고 살아온 서브트 증후군 동생 '진태'가 영화의 중심에 서 있다.

이병헌은 한때 WBC 웰터급 동양 챔피언을 거머쥐었지만 지금은 별 볼일 없고 갈 곳까지 잃은 전직 복서 조하 역을 맡았다. '내부자들'에서 보여준 정치 강패, '마스터' 속 희대의 사기범, '남한산성' 속 이조판서까지 매 작품 장르와 캐릭터를 불문하고 완벽한 연기로 관객을 사로잡은 이병헌은 선 굵고 무게감 있는 캐릭터를 벗고 친근하고 인간미 넘치는 역할을 입었다.

가족도, 돌봐주는 이도 없이 평생을 주먹과 멧집, 자존심으로 살아온 조하는 걸으로는 무뎠고 단단하고 거칠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속성 깊은 인물로 인간적이고 진한 매력을 발산한다. 장애를 갖고 있는 동생 진태가 불편하고 귀찮다고 툴툴대지만, 싫다고 하면서도 챙겨준다. 안 보는 척하면서도 신경 써 준다. 결정적 순간 진태의 편이 되어주는 반전 매력의 조하는 영화의 웃음과



이병헌 '그것만이 내 세상'

별 볼일 없고 갈 곳 잃은 '전직 복서' 역할 맡아 선 굵고 무게감 있는 캐릭터 벗고 인간미 입어



류승룡 '역력'

이미 해외 190여개국 선판매로 화제성 입증 몸무게 12kg 늘리고 와이어 액션까지 최선



황정민 '리처드3세'

'웃음의 대학' 이후 10년만에 연극무대 복귀 굴곡진 인생·사이코틱 인물·극적인 스토리

감동의 중심축이 되어 극을 이끈다.

얇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형제의 좌충우돌 '케미스트리'가 만들어내는 유쾌한 웃음과 재미는 물론,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을 열며 진짜 형제가 되어가는 통해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며 감동을 자아낸다.

그리고 tvN '미스터 션샤인'으로 안방극장 시청자를 만난다. 지난해 '태양의 후예' '도깨비' 신드롬을 일으켰던 김은숙 작가가 신작으로 총무로의 신에 김태리와 호흡을 맞춘다. '미스터 션샤인'은 신미양요(1871년) 때 군함에 승선해 미국에 떨어진 한 소년이 미국 군인 신분으로 자신을 버린 조국인 조선으로 돌아와 주둔하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 드라마다.

2015년 영화 '도리화가'와 '손님' 이후 3년만에 스크린 복귀를 앞둔 류승룡은 상호 감독의 신작 '역력'을 통해 조

능력자로 변신한다. 이미 해외 190여개국 선판매로 놀라운 화제성을 입증한 '역력'은 갑자기 초능력이 생긴 아빠 '석현'과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빠질 딸 '루미'가 세상에 맞서 상상초월 능력을 발휘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평범했던 한 남자가 특별한 능력이 생긴 뒤 변화하는 일상을 유쾌하게 담아내 기대를 모은다.

'7번방의 선물'에서 6세 지능을 가진 아빠 '명량'의 왜군 장수까지 흡입력 있는 연기로 관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던 류승룡은 갑자기 역력을 갖게 된 남자 신석현으로 분한다.

장난 치기 좋아하고, 적당히 제 잇속도 챙길 줄 아는 평범한 한 남자가 위기에 처한 딸을 위해 역력을 발휘하며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모습을 친근하고 능청스러운 연기로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몸무게를 12kg 늘리는 외모 변신부

터 와이어 액션까지 캐릭터 그 자체가 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참신한 소재와 배우의 노력이 버무려진 '역력'은 1월말 개봉한다.

끝으로 영화 '베테랑'과 '국제시장'으로 쌓인 배우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니는 국민 배우 황정민은 10년만에 연극무대 복귀 소식을 전해 공연팬들을 설레게 했다.

황정민은 2월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에서 개막하는 셰익스피어 원작의 연극 '리처드3세'에 출연한다.

2008년 '웃음의 대학' 이후 10년 만에 연극무대에 복귀하는 황정민은 이번 작품에서 불품없이 못생긴 얼굴과 움츠러든 왼팔, 곰사 등을 가진 신체적 불구자이지만 이 모든 콤플렉스를 뛰어넘는 뛰어난 언변과 권모술수, 유머감각, 탁월한 리더십으로 경쟁구도의 친족들과 자신들을 모두 숙청하고 권력

의 중심에 서는 희대의 악인 리처드3세로 분한다.

'리처드3세'는 영국 장미전쟁시대의 실존인물을 바탕으로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쓴 초기 희곡이며 그가 탄생시킨 수많은 캐릭터 중 가장 매력적인 악인으로 평가 받고 있다. 배우라면 누구나 탐낼 만한 굴곡진 인생과 사이코틱한 인물성격, 극적인 스토리를 지닌 캐릭터다.

황정민은 왕권을 얻기 위해 한 인물이 얼마나 사악해지고, 나약해질 수 있는지 폭넓은 감정선을 디테일하게 그려 예정이라고 앞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소감을 전했다. 집요한 인물분석과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작품만큼 웬케스트로 온다. 정용인, 김여진을 비롯해 김도현, 정은혜, 박지연, 임기홍이 무대에 선다. 2월 6일부터 3월 4일까지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에서 공연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메트로신문이 직접 편집한 경제뉴스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메트로신문을 볼 수 있어요!



네이버 뉴스스탠드

IOC “北, 평창올림픽 참가의지 표명 환영”

“대표단 파견에 필요한 조치 할 것”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북한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참가 의지를 표명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마크 애덤스 IOC 대변인은 2일(한국시간) 세계 스포츠 주요 전문매체인 '인사이드더게임스'와 인터뷰에서 "IOC는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한국 정부,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와 긴밀한 협조를 이어나갈 것"이라면서 "평창올림픽 참가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발언을 열린 방식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 1일 신년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1일 오전 중앙위원회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가 있다. 이를 위해 북한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동안 북한은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해 북측부담으로 일관했다. 지난해 9월

독일에서 열린 피겨 네벨호트루피 대회에서 페어스케이팅 종목 올림픽 출전권을 자력으로 획득했으나, 참가 의지를 표명하지 않으면서 평창행을 스스로 포기했다.

그러나 대회 개막을 39일 앞두고 김 위원장이 평창행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청와대와 이회법 조직위원장은 즉각 북한의 메시지에 화답하면서 북한의 참가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IOC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자력으로 출전권 확보가 힘든 북한에 와일드카드를 주는 방안을 고려해 왔다. 이를 위해 각 종목 국제연맹과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민서 기자 min0812@

스포츠 한줄 News

- ▲ 프로농구 안양 KGC 인삼공사의 센터 오세근이 2017-18 정관장 프로농구 3라운드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다.
- ▲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이 남자프로테니스(ATP)투어 브리즈번 인터내셔널 1회전에서 질 윌러(룩셈부르크)를 완파하면서 2018년을 힘차게 시작했다.
- ▲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김해림, 조윤지, 이주미와 자유진 감독이 삼천리 스포츠단에 입단했다.
- ▲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현지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은 우리에게 매우 중

- 요한 선수다. 기록 없는 플레이를 펼치며 많은 골을 넣고 있다"면서 그가 영국 현지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 ▲ 23세 이하(U-23) 축구 대표팀의 주전 공격수 조영욱이 FC서울에서 프로 무대에 데뷔한다. 현재 U-23 대표팀에 소집돼 있는 조영욱은 오는 4일 메디컬 테스트를 받을 예정이다.
- ▲ 권오갑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가 무술년 새해를 맞아 "올해를 K리그의 도약과 발전의 한 해로 만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 ▲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 수원FC가 일본 프로축구 J2리그 제프 유나이티드에서 뛰던 수비수 김범용을 영입했다. 또 포항 스틸러스는 프로축구 웰린지 성남FC에서 뛰다가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은 수비형 미드필더 이후권을 영입했다.